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감시소에서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계획과 조종방사탄의 전술기술적제원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시험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순간 방사탄들이 시뻘건 불줄기를 내뿜으며 거세차게 날아올라 푸른 하늘가에 원썩멸의 비행운을 자랑차게 새기였다.

파편지뢰탄, 지하침투탄, 산포탄에 의한 여러가지 사격방식으로 진행된 시험사격에서는 고에너지기물질을 혼합하여 위력을 높인 방사탄전투부의 파괴살상력이 놀라울 정도로 위력하다는것을 검증확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기할 정도로 정확한 조종방사탄의 명중성과 적대상물로 가상하여 견고하게 설비한 인원, 땅크, 포, 전투차운페부들을 콩가루같이 부서뜨리는 전투부의 놀랄만 한 위력을 보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원수들을 전몰시킬 또 하나의 강위력한 주체탄, 통일탄을 쓸수 있는 위엄높은 로동당시대의 주체무기가 연구개발완성된것은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주시려 주체적인 국방력강화발전에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당의 국방과학기술증시정책이 낳은 자랑찬 결실인 동시에 우리의 자립적인 국방공업의 위력이 얼마나 무진막강한가를 웅변으로 보여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식의 신형대구경방사포들이 계열생산되게 됨으로써 이제는 우리 군대의 라격력을 질적으로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금 적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해



치려고 미친듯이 발광하면서 이른바 《참수작전》과 《체제붕괴》와 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지막도박에 매달리고있는 것으로 하여 정세는 더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박근혜가 지금 뒤일을 감당해낼 대책도 없이 《단호》하고 《용감》한척이라도 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며 미국놈들과 맞장구질을 해대며 무모한 무력증강놀음을 벌려놓고 《선제공격》까지 운운하고있는데 이는 쇠를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것과 같은 누가 봐도 못나고 어리석은것이라고 하시면서 역대 집권자들이 림종을 앞두고 마지막발악을 하던 때를 련상시키는 박근혜의 광기는 결국 스스로 자멸의 길을 재촉하는것으로 될뿐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그 어떤 집권자가 올라앉아도 박근혜와 같이 무분별하고 못한 짓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톡톡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우주리용권리를 빼앗아보려고 생떼를 써오던 적들이 우리를 겨냥한 저들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앞두고있는 지금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진행한 새로운 무기체계시험을 놓고는 또 어떤 요사스럽고 간교한 꾀설을 늘어놓으며 여론을 오도해보려고 발악할지 두고볼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박근혜 《정권》이 미제를 겨냥하고있는 우리의 핵타격무장의 조준경안으로 자발로 게바라들어오는 자살적인 망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리성적으로 분별있게 처신하고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만일 박근혜가 미국상전의 핵전쟁책동에 편승하여 못난 불장난질을 해대며 존엄높은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사소한 군사적망동질이라도 저질러놓는다면 그때에는 미처 후회할 시간적여유도 가질수 없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섬멸의 포문을 열어두고 박근혜의 생존욕과 생존방식을 지켜볼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과 학부에서 조성된 침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만반의 최후결전준비를 완성하

기 위하여 이번 시험사격에서 그 위력이 확증된 신형대구경방사포를 비롯한 최근 개발한 타격무기들을 최고사령부의 작전전역들에 하루빨리 실전배비함으로써 적들이 제땅에서 최후의 종말을 맞는 순간까지 단 하루, 단 한시도 불편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적들이 과시성, 위협성의 각종 전략전술무기들을 조선반도의 남쪽땅에 배비해놓고 우리에게 대한 선제공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며 위협공갈을 일삼고있는 지금이야말로 핵무력강화의 필요성을 보다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력사적 시기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핵

보유를 선택하고 핵무력을 백방으로 장성강화시켜온 길이 얼마나 선견지명하며 천만번 정당했가를 확신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미제가 군사적강권을 휘두르며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 전쟁과 재난을 서슴없이 강요하고있는 오늘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앞으로도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힘의 균형을 이룩하는 것뿐이라고 하시면서 국가방위를 위하여 실전배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아 버릴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방과 학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조국수호의 전초선을 지켜선 높은 책임감과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최고사령부의 전략적구상에 따라 마음먹은대로 작전을 진행할수 있는 새로운 공격형최첨단무장장비들을 계속 줄기차게 개발완성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는 올해에 군력강화에서 새로운 질적비약을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가리라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한 유엔안보리사회의 대조선 《제재》결의에 단호한 대응조치로 맞서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변인 성명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인공 지구위성 《광명성-4》호의 완전성공에 기절초풍한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3월 3일 새벽 드디어 유엔안보리사회 이름의 도용하여 악랄한 대조선 《제재결의》 제2270호를 조작해 내었다.

《결의》가 채택되자마자 미국의 오바마는 《환영메세지》라는 것을 발표하고 국무장관 케리를 내세워 《지지성명》을 공표하게 하였으며 잇달아 어중이떠중이들은 멋없이 그에 맞장구를 치고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사회 《제재결의》의 효과성을 떠들어대면서 우리 군대와 정부의 핵심일군들을 《특별제재》대상으로 지명한 《독자제재》까지 덧붙여 발표하였다.

일본도 덩달아 아베의 《지지론평》과 기사다의상의 《지지담화》를 내보내었다.

지어 남조선의 박근혜당까지 한밤중에 《성명》이라는 것을 내고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니, 《단호한 메세지》니 뉘니 하고 고아대고있다.

새해를 맞으며 세계를 진감시킨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광명성-4》호의 성공적발사에 질겁한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57일간이나 쑥덕공론을 벌인 끝에 조작해낸 이번 《제재결의》는 이미 예견된것으로서 별로 놀랄것도 새로운것도 아니다.

문제로 되는것은 이번 《제재결의》가 당치않은 구실로 자주적이며 정의로운 주권국가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가장 로골적이며 가장 극악한 국제적범죄행위라는데 있다.

이미 천명하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의 수소탄시험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적 대시정책과 가증되는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인 핵억제력 확보조치이며 우리의 위성발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

법적인 권리행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공모결탁하여 우리의 자주권을 엄중히 위협하고 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전면도전하는 유엔안보리사회 《제재결의》를 조작해낸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세계앞에 천명한다.

첫째, 유엔안보리사회의 악랄한 대조선 《제재결의》를 존엄높은 자주독립국가인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가장 극악한 도발로 락인하고 단호히 배격한다.

이번 대조선 《제재결의》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여야 할 유엔안보리사회가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꺾버리고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장단에 놀아나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조작해낸 범죄적인 문건이다.

원래 우리는 공화국에 대한 유엔의 모든 《제재결의》들을 단 한번

도 인정해본적이 없다.

둘째,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로골적으로 짓밟는 길에 들어선 이상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 뒤따르게 될것이다.

우리의 대응에는 강력하고 무자비한 물리적대응을 포함한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총동원될것이다.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이 유린당하는것을 뻔히 보면서 수수방관할 우리가 아니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누구도 바라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 유엔 《제재결의》에 가담한자들이 지게 될것이다.

셋째, 유엔안보리사회가 저지른 이번 특대형국제범죄를 계기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국제정치질서를 결정적으로 깨버리기 위한 범세계적 인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나

정의와 공정성이 유린되고 이종기준과 부정의가 판을 치는 세계의 흐름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다.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자대에 따라 합법성과 비법성이 제멋대로 재단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우리 공화국은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앞으로 병진로선의 기치를 억세게 틀어쥐고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며 위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해 이미 선택한 길을 따라 과감히 전진할것이다.

세계는 유엔 《제재결의》를 천백배의 대응조치로 맞받아나가는 우리 공화국이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해나선 일간망둥이들의 독판치기로 전락된 유엔의 죄 많은 력사를 어떻게 끝장내고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을 어떻게 바로잡아나가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주제 105(2016)년 3월 4일 평양

《그 어떤 〈제재〉로도 우리 앞길을 막지 못한다》

각 계층 군중들의 성토

박근혜당이 미국에 추종하여 《대북제재결의안》이라는것을 조작해내는데 앞장서 날친것은 정말 가소롭기 그지 없다.

공화국의 강위력한 수소탄은 바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제재》로 하여 생겨났건고 강철이 불속에서 단련되듯이 공화국은 바로 그 《제재》속에서도 더욱 강해질것이다.

《제재》늘음으로 적대세력들이 보게 될것은 자강력으로 더욱 강대해지는 공화국의 위력이며 얻을것은 쓰디쓴 참패뿐이다.

겨레의 운명을 지켜주고 후손만대 번영을 담보하는 불패의 힘이고 만능의 보금인 민족의 강대한 힘을 없애려 발광하는 저 박근혜당을 후세의 력

사가들이 과연 어떻게 기록할것인가.

민족의 수치로, 만고의 역적무리라고밖에 달리 부를수 없을것이다.

은 세상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다.

남들은 그렇게 가지고 싶어도 가질수 없는 민족의 귀중한 보물중의 보물을 저 모자라는 멍청구리 박근혜할미는 없애지 못해 악을 쓰며 지랄한다고.

저쯤되면 약이 없고 갈때가 되었다.

허나 죽기 전에 똑똑히 알아두라.

늘다리 로파가 발광할수록 제명은 그만큼 짧아지고 젊음으로 빛나는 우리 공화국은 더욱더 강대해진다는것을.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김덕성

미국의 사족하여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그 무슨 《제재》결의가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나의 마음은 조선사람의 정신력과 기질이 어떤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도 깰수 있다는 우리의 사상의 힘을 적대세력들은 알지 못하는것 같다.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의 성공적발사를 두고 질겁을 하는 적대세력들에게 령도자의 두리에 온 나라가 하나로 뭉친 일심단결의 힘이 얼마나 위력하고 무서운것인가를 보여주었다.

적대세력의 끈질긴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조금

도 굴함없이 창조와 변혁의 기적을 수놓아가는 오늘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일심단결의 힘으로 거어 다는 소식을 들은 나의 마음은 조선사람의 정신력과 기질이 어떤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근로단체출판사 부장 김진수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후대사랑의 뜻으로 훌륭히 개진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밝은 창가에서는 낮이나 밤이나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와 맑은 노래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것은 우리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만이 아니라 조국땅 그 어디서나 꽃피는 후대사랑의 송고한 메아리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벌리는 《제재》소동은

공화국의 이 아름다운 미래에 검은구름을 드리워 보려는 추악한 망둥이다.

우리 공화국의 아이들이 씩어빠진 자본주의제도에서 이지러지고 스러져가는 아이들처럼 될것을 바라보는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하지만 어렵도 없다.

우리 공화국에는 온 나라 아이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위대한 령도자께서 계신다.

비바람, 불구름도 다 막아주시며 사시장철 아름다운 화원만을 가꾸어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없고 미래의 주인공들이 아이들의 얼굴에는 한점 그늘도 비낄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제재》망둥은 우리 아이들의 꺼질줄 모르는 웃음소리, 노래소리에 이미 물거품이 된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어떤 압박이나 《제재》도 미래사랑, 후대사랑의 락원속에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는 공화국의 밝은 미래를 다칠수 없을것이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지도교원 전해영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첫 수소탄시험성공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공적발사로 세계를 진감시킨 그 기세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질풍노도로 나아가고있다.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

속공격해나가는 공화국의 곳곳마다에서 총진군, 총공격전의 불길이 타오르고있다.

그런데 감히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자주적공화국의 이 거세찬 불길에 그 무슨 《제재》의 찬물을 끼얹어보려고 한다.

《제재》따위를 할테면 하라.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무적의 군사강국,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위용떨치는 공화국은 미국이 벌려놓은 《제재》소동같은것에는 꺾이지 않는다.

우리 화력발전소 보이라에 물 몇바께뜨를 퍼붓는다고 불이 꺼질수 없는것처럼 승리자의 대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눈에는 그따위 《제재》같은것이 용암에 뿌려진 쥐오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화력발전소의 로동계급은 더 많은 전력생산으로 자립적민족경제의 생명선을 지킬것이며 보이라의 거세찬 불길, 총진군의 불길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제재》를 깰것이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직장장 로강철

기저기 아양을 떨며 동족대결을 구걸하는 역겨운 추태 정말 더럽다.

자강자력의 위력으로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치는 공화국을 외세의존에 명줄을 걸고있는 박근혜파위가 어찌보겠다는것은 그야말로 삶은 소대가리 웃다 꾸레미러질 노릇이다.

어리석은 망상으로 그 누구를 먹어보겠다고 날뛰는 박근혜는 매국역적으로 위용떨치는 공화국을 기어코 심판하려고 분노와 복수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는 이 나라 수백만 청년들의 멸적의 기상에 제 먼저 비명객사할것이다.

김철주사범대학 학생 정운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짝자꿈이해서 우리를 반대하는 《제재결의안》이라는것을 또 만들었다는데 격분을 금할수 없다.

승냥이같은 미국놈이나 교활하기가 여우 찹찹먹을 섬나라족속이야 우리 하구 불구대천의 원수니까 그렇다치고 식민지노복에 불과한 박근혜파위가 제 죽을줄두 모르구 너덜대는 팔은 차마 눈뜨고 못 봐주겠다.

동족과 피를 물고 해보는 박근혜당이야말로 동족대결에 미친 놈들이 아니구 무엇인가.

박근혜가 비명횡사해버린 제 예비의 뒤를 이끌 날도 멀지 않았다.

평양시 평천구역 새마을2동 리철성



조선의 단호한 대답

조선인민군 예비포병부대들에 실전배비하게 되는 신형대구경방사포의 시험사격은 다시금 세계를 뒤흔들어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속에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연구개발완성된 신형대구경방사포는 남조선작전지대안의 주요타격대상들을 사정권안에 두고있는 정밀유도체계를 갖춘 첨단장거리대구경방사포체계이다.

이번 시험사격에서는 신기할 정도로 정확한 조종방사탄의 명중성과 적대상물로 가상하여 견고하게 설비한 인원, 땅크, 포, 전투차음페부들을 풍가루같이 부서뜨리는 놀랄만한 위력을 보여주었다. 이 신형대구경방사포 하나만 가지고서도 가까이에 있건, 멀리에 있건 적의 진지와 대상들을 불바다로 만들수 있다.

이것은 나라의 국방력강화에서 또 하나의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의 자위적선택인 핵억제력강화와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발사를 걸고 전례가 없는 날강도적인 새로운 《제재결의》를 조작하여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까지 비법화하는 포악무도한 적대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미제의 목적은

정치, 경제, 군사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공화국을 질식시키 이 땅을 타고앉자는데 있다. 미제는 그 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날강도적인 《제재결의》조작과 함께 며칠후에는 남조선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이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을 사상최대 규모에서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이 훈련에는 각종 핵타격수단들과 해외침략전쟁들에서 악명을 떨친 특수작전부대들까지 참가하게 된다.

적대세력들은 이 훈련에서 새로 꾸며낸 《작전계획 5015》의 핵심항목인 《참수작전》과 우리의 핵 및 전략로케트무력 《제거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하겠다고 서슴없이 떠들어대고있다.

적들의 이러한 무모한 전

쟁광기는 지금까지 말로나마 《년례적》이며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정당화하던 합동군사연습의 파렴치한 간판마저 풀뚝 벗어던지고 이 땅에 핵침략의 재난을 몰아오려는 흥심을 그대로 드러낸것으로 된다. 그에 편승하여 박근혜역적패당은 기고만장하여 공화국의 《제재봉괴》를 쟁취대는 망동까지 부리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진행된 신형대구경방사포들의 시험사격은 상식도 리성도 모르고 부정의 힘을 함부로 휘두르는 무지막지한 침략자, 호전광들을 선군의 강력한 힘으로 짓밟개버리고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려는 공화국의 드립없는 의지의 분출로 된다.

이번 시험사격을 몸소 보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적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해치려고 미친듯이 발광하면서 이른바 《참수작전》과 《제재봉괴》와 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지막도박에 매달리고있는것으로 하여 정세는 더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것이라고 단호히 언명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박근혜가 지금 뒤일을 감당해낼 대책도 없이 《단호》하고 《용감》한척이라도 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며 미국놈들과 맞장구질을 해대며 무모한 무력강늘음을 벌려놓고 《선제공격》까지 운운하고있는데 이는 쇠를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것과 같은 누

가 봐도 못나고 어리석은것이라고 하시면서 력대 집권자들이 림종을 앞두고 마지막발악을 하던 때를 련상시키는 박근혜의 광기는 결국 스스로 자멸의 길을 재촉하는것으로 될뿐이라고 하시였다.

만일 박근혜가 미국상전의 핵전쟁책동에 편승하여 못난 불장난질을 해대며 존엄높은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사소한 군사적망동질이라도 저질러놓는다면 그때에는 미처 후회할 시간적여유도 가질수 없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국가방위를 위하여 실전배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버릴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의 말씀에는 미제가 군사적강권을 휘두르며 다른 나

라와 민족들에게 전쟁과 재난을 서슴없이 강요하고있는 오늘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앞으로도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힘의 균형을 이룩하는것이 천만번 정당하며 적들의 침략을 앓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소한 움직임과 시도만 보어도 일격에 격멸소탕해버림으로써 이 지구상에서 전쟁의 확고한 송두리채 들어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사변을 안아오시려는 단호한 결심과 의지가 집약되어있다.

적들의 아무리 가혹한 《제재》가 가해진다고 해도, 아무리 방대한 침략무력이 덤벼든다고 해도 공화국이 선택한 자주와 정의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려는 선군조선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시뻘건 불줄기를 내뿜으며 거세차게 날아올라 푸른 하늘가에 원추격력의 비행운을 새긴 조종방사탄들에 그대로 담겨져있다.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드물지 않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공화국이 가는 앞길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으며 이 억센 의지를 꺾을수 없다.

선군을 자위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적들의 《제재》와 고립압살, 침략책동에 맞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는 공화국의 앞길에 최후승리의 축포는 반드시 오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조선의 태양은 영원하다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렬한 애국충정과 원수적멸의 의지로 조국보위에 탄원한 일군들과 근로청년들, 학생들에게 사랑과 믿음어린 감사문을 보내시였다.

감사문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들의 열렬한 애국충정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천만군민이 당중앙트락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사는것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있어본적 없는 조선의 진보습이고 원수들은 백번 죽어도 리해할수 없는 우리 사회의 생리이며 당과 군대와 인민이 철통같이 뭉친 강철의 혁명적단결, 바로 이것이 몇십, 몇백개의 원자탄이나 수소탄에 비할바 없는 우리의 최강의 힘이라고 하시였다.

이 감사문에 접한 온 나라 군대와 인민들, 청년들은 한없는 격정에 휩싸여 위대한 선군령장을 끝까지 받들고 따를 충성의 열의로 가슴끓이고있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수령은 국가의 최고령도자이시기 전에 삶의 운인이고 태양이며 미래의 전부이다.

나라의 존엄인 최고수뇌부를 자기의 삶과 전부보다 더 신성시하고있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순간도 령도자를 떠난 개인의 운명에 대해 생각조차 해본적이 없다.

하기에 그가 누구든 나라의 존엄높은 최고수뇌부를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추호의 용서도 아량도 인내도 모르고 가차없이 징벌하는것이 공화국의 천만군민이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무비의 헌신성과 희생성은 한순간에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창조와 행복의 오랜 나날을 통하여 형성되고 억척같이 다져진 가장 깨끗하고 숭고한 마음이다.

돌이켜보면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땅의 주인, 공장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그 품에 삶의 전부가 있었기에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 지난 세기 50년대 조국수호전에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을 타승하고 무비의 영웅신화를 창조하였으며 허리띠를 조이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울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이 세상 끝까지 받들어 모실 한마음으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신념의 노래를 부르며 선군태양 김정일장군님을 따라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봉쇄와 고립압살을 물리치고 강성국가건설의 활로를 열어제겼다.

수령송배, 수령옹위의 전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공화국을 자위의 수소탄을 보유한 군사강국, 우주강국으로 빛내여주시고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인민의 천만복을 꽃피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없인

못산다는것이 천만군민의 드립없는 의지이고 철석같은 신념이다.

그이의 령도를 떠나서 공화국의 빛나는 오늘과 래일, 후손만대의 번영도 있을수 없다.

하기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중대성명이 발표된 후 단 이틀동안에 전국적으로 150여만명에 달하는 일군들과 근로청년들, 대학,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인민군대입대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해나선것이다.

이런 위대한 인민을 모르고 감히 《참수작전》 따위를 들먹이며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으니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야말로 제 죽을줄 모르고 마구 헤딩비는 가련한자라 해야 할것이다.

맨발로 바위를 차면 제발이나 아플뿐이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한 공화국의 일심단결은 원자탄으로도 깰수 없고 심리전, 사상문화공세로도 금이 가게 할수 없으며 《참수작전》 따위로도 어쩔수 없는 억년드늘지 않는 억센 바위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상대를 토평히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늘의 태양을 가리우려는 무모한 시도를 한다면 그 순간은 미국땅전체가 불바다가 되며 청와대가 통째로 날아나는 악몽의 순간이 되게 될것이다.

령도자의 두리에 천겁만겁의 방탄막, 천만의 총폭탄을 이룬 위대한 군대와 인민이 있는 한 조선의 태양은 영원하다.

리복순

적대세력들의 《유엔제재》늘음과 북침전쟁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속에 얼마전 공화국에서는 새로 개발한 반땅크 유도무기시험사격이 진행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레이자유도장치에 의해 시뻘건 불줄기를 뿜으며 목표로 정확히 빠르게 날아가는 로케트탄, 두꺼운 복합철판으로 된 땅크의 포탑이 마치 널쭉각이 박살나듯 산산조각나고 통째로 들려나가는 통쾌한 광경...

새로 개발한 반땅크 유도무기가 얼마나 위력하며 공화국의 자립적인 국방공업이 얼마나 큰 은을 내고있는가를 가슴뚫히게 보여주는 장면들이였다.

땅크는 현대전쟁에서 위력한 공격수단의 하나로 되고있다. 지난 세기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도 땅크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데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전쟁초기에 파썸이첸란드는 땅크를 골간으로 한 《전격전》으로 볼스가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단기간에 점령하였다. 또한 쏘도전쟁시기 전략적 주도권을 쥐기 위한 꾸르스크전투는 대땅크전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려 1000여대의 땅크와 자동포가 서로 맞붙어 싸운 이 전투에서 파썸이첸란드군은 350여대의 땅크를 잃고 패하였으며 이로인해 전쟁의 주도권은 이전 쏘련에 넘어가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전쟁은 하늘과 땅, 바다에서 림체적으로 벌어지지만 승패여부는 주요하게 지상전에서 판가름나게 된다. 그 지상전에서 주요 무장장비의 하나가 땅크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땅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있다. 땅크의 속도를 높이는가 하면 땅크장갑을 두껍게 하고 땅크포의 구경을 크게 하여 사거리를 늘이고있으며 밤이 나안개속에서도 정지함이 없이 전진하면서 자동적으로 명중사격을 진행

한 거침없이 적의 심장부를 뚫고 들어가 적지 휘부들 완전히 격멸하겠고 《고 혼소리를 쳤는데 이 반땅크유도탄에 맞고 파철더미가 된 땅크, 포탑이 통째로 들리우며 만신창이 되는 광경을 보 고서는 아마 오금이 저려 감히 다시 그런 나발을 쉼 처대지 못할것이다.

반땅크유도무기의 시험사격은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의 일대 파시

시험사격이 보여준 무진막강한 군력

할수 있게 하고있다. 그런가하면 기밀구조와 공기청소장치를 도입하여 2~5m의 물밑으로 전진할수 있게 하고 오염구역도 극복할수 있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공화국에서 새로 개발한 반땅크유도무기는 적의 땅크나 장갑차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무기이다. 이 현대적인 무기들이 다량제련생산되어 인민군대들에 배치되면 실사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적의 땅크들은 이 땅에 한대도 기여들지 못하게 된다.

기여들다가는 모조리 이번 시험사격에서 보듯이 풍가루가 되기 때문이다.

얼마전 남조선군의 20기계화보병사단의 려단장이 라는 자가 《명령만 내리

면 거침없이 적의 심장

부를 뚫고 들어가 적지 휘부들 완전히 격멸하겠고 《고 혼소리를 쳤는데 이 반땅크유도탄에 맞고 파철더미가 된 땅크, 포탑이 통째로 들리우며 만신창이 되는 광경을 보 고서는 아마 오금이 저려 감히 다시 그런 나발을 쉼 처대지 못할것이다.

반땅크유도무기의 시험사격은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의 일대 파시로 된다. 이날 시험사격을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휴대용레이자유도반땅크로케트로서는 우리의 군수로동계급이 만들어낸 이 로케트가 사거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길다 고, 명중성을 보아도 마치 저격수보총으로 목표를 쏘아 맞히는것처럼 대단히 정확하다고, 장갑판들이 다량제련생산되어 인민군대들에 배치되면 실사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적의 땅크들은 이 땅에 한대도 기여들지 못하게 된다. 기여들다가는 모조리 이번 시험사격에서 보듯이 풍가루가 되기 때문이다.

얼마전 남조선군의 20기계화보병사단의 려단장이 라는 자가 《명령만 내리

적땅크, 장갑차들도 우리의 반땅크유도무기앞에서는 삶은 호박에 불과하다고 하시며 호랑하게 웃으시였다.

적은 인원이 휴대하고 다니므로 적의 표적으로 되지 않을뿐아니라 임의 장소에서 상대를 기습 타격할수 있으며 정밀성과 파괴력을 겸비한 한 위력을 가진 이렇듯 훌륭한 주체무기를 개발하도록 과업을 주시고 현명하게 이끄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날로 가증되는 적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군력을 철벽으로 다져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켜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의지를 받들어 개발자들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담력과 배짱으로 이렇듯 위력한 무기를 만들어냈다.

앞으로도 공화국에서는 선군령장의 탁월한 령도아래 적대세력들이 알지도 느껴보지도 못한 우리식의 위력한 첨단무장장비들이 더 많이 개발완성되어 이 땅, 이 나라를 수호하게 될것이다.

김금순



조국과 함께, 민족과 함께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결성 25돐을 맞으며 ◆

어머니조국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3월 3일은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결성 25돐을 맞은 매우 뜻깊은 날이었다.

이날을 맞아 조국인민들, 온 겨레는 이역에서도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의 통일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애국활동을 즐기치게 벌려온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동포들에게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보내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이 더욱 고조되고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열대기인 범민련이 조직된것은 재중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에서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79(1990)년 8월 18일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재중동포들을 비롯한 북과 남, 해외의 대표들을 몸소 만나주신 자리에서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길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어머니수령님의 연설은 새로운 전일적이며 통일적인 동포조직의 결성을 갈망하던 재중동포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로 되었다.

그 이듬해인 주체80(1991)년 3월 3일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전신)가 창립의 고고성을 터치게 되었다.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는 결성초기부터 본부와 지구협회, 시, 현의 지부, 향(진)의 분회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기구체제와 직제들을 갖춘 조직체였다.

이날은 재중동포들이 어머니조국과 운명의 피줄을 맺은 참으로 뜻깊은 날이었다.

이날이 있어 애국애족, 애국충정으로 자랑높은 재중총련의

어제와 오늘, 래일이 있게 된 것이다.

재중총련이 걸어온 지난 25년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과 은정속에 조국과 운명의 피줄기를 잇고 민족을 위한 참다운 애국활동을 벌려온 긍지높은 나날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체81(1992)년 4월 범민련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축하방문을 받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어 주시는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었다.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위해주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해마다 재중총련의 대표단들을 조국에 불러주시고 재중총련의 일군들과 동포들에게 국가표창과 함께 귀중한 선물도 안겨주시었으며 동포예술인들을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에 참가하도록 은정도 배려해주시었다.

어머니수령님의 서거로 온 나라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상심의 아픔을 겪으셔야 했던 장군님께서 해외동포조직의 대표단을 위해 위로연을 마련해 주신 감동깊은 사연은 오늘도 사랑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도 재중총련에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었다.

재중총련의 일군을 국가적인 대회의 주석단에 여러차례 내세워주시고 몸소 그의 손도 따듯이 잡아주시었으며 어느해에는 조국을 방문한 재중동포들을 만나주시고 사랑의 기념

사진까지 찍어주시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크나큰 사랑을 심장속깊이 새기고 재중총련과 동포들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긍지를 노래하며 애국충정의 한길을 끝없이 걸어왔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결성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를 충정으로 만드는 사업을 생명선으로 여기고 조직을 강화하여 왔다.

총련합회에서는 길림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언제나 정중히 모시고 보위하고 있으며 수령님의 동상을 모신 길림육문중학교에서 태양절을 비롯한 주요 계기들에 뜻깊은 정중행사, 기념행사를 조직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해마다 항일의 친구들을 찾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인상을 가슴깊이 새기고 항일렬사들의 정신을 따라배우고 있다.

지난해에도 재중총련에서는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동북의 혁명전적지들과 사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진행하였다.

재중총련에서는 공화국의 해외동포원호위원회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여러 조국방문단과 축하단들을 조국에 파견하고 그들이 돌아오면 귀환보고도 조직함으로써 공민들과 동포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공화국의 경이적인 발전모습들을 실지 체험으로 느끼도록 하고 있다.

재중총련에서는 조국의 강성국가건설사업에도 특색있는 기여를 많이 하였다.

재중총련의 일군들과 동포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에 도움이 되고 보람이 될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 힘과 지혜를 합쳐가면서 반드시 해내고야마는 숭고한 애국충정을 발휘해나갔다.

재중총련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제안 및 조치들과 그 리해와 관련한 발기와 호소들에 대한 지지성원으로부터 미제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과 남조선 당국자들의 분렬주의적인 죄행을 폭로하는 성명, 담화, 호소문 발표 등 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재중총련은 지난 기간 동포사회의 단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총련합회에서는 모범지부운동, 공민피찾기사업을 비롯하여 동포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자기의 살점처럼 여기며 풀어나가 한식술로 묶어세웠다.

나이가 많은 공민들을 잘 돌봐주고 그들이 세상을 떠나면 장의까지 도맡아주며 불상사가 생긴 공민가정들을 친혈육보다 더 따듯이 보살펴주고 있다.

하기에 재중동포들은 재중총련을 가리켜 《우리 집》이라고 정답아 부르는 것이다.

오늘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자기 발전력사에서 최전성기를 누리

고 있다. 이역땅에서도 동포자녀들이 참된 애국자로 자라나고 청년핵심들과 젊은 동포상공인들을 비롯한 새 세대 동포군중핵심들이 육성되어 애국충정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고있는것은 재중총련의 긍지이고 힘의 원동력이다.

세상에 해외교포조직이 많지만 재중조선인총련합회처럼 자기 령도자, 자기 조국을 진심으로 받들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헌신의 길을 끝없이 걸어가는 참다운 주체의 해외교포조직은 없다.

공화국은 자기 수령과 조국, 자기 민족에게 끝없이 충실한 애국적해외교포조직인 재중총련을 가지고있는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해외에서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고 동포사회를 하나로 묶어세워 조국과 동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강한 재중총련, 애국적인 공민들과 동포들이 있어 우리 조국이 더욱 강한것이다.

절세위인의 탁월한 애국의 령도를 받들고 따르는 존엄높고 자랑많은 재중총련의 앞길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본사기자 김춘경



총련결성 2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재중조선공민들이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다.

장백의 산발을 넘어 암록강물결을 넘고넘어 꿈에도 달려가는 사랑하는 나의 조국 아래양민족그 자랑안고 백두산 우러러 우린 삽니다

노래 《백두산을 우러러 우리 삽니다》를 부르느라 먼

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따라 재중조선공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걸어온 자랑찬 력사가 가슴뿌듯이 안겨온다.

돌이켜보면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걸어온 25년

의 자옥은 항일전의 총포성이 드높던 백두산자락 아래 인생의 터전을 잡고 백두령장들의 넋과 자옥을 매일매시각 체득하며 억만년 마를줄 모르는 애국애족의 샘줄기로 삼고 흘러보낸 격정의 해와 달들이었다.

이 영광넘친 년대기에 조국인민들과 함께 조종의 산, 백두산을 한시도

김정일장군님의 무적필승의 기상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이 력력히 어려있는 백두산은 언제 어디서나 재중동포들의 마음의 기둥으로 되고 있다.

백두가 지닌 존엄과 기상, 정열과 슬기, 그것은 재중동포들의 신념과 의지, 뜻과 숨결, 희망과 환

희, 참다운 삶의 명백이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이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고난과 시련을 헤치고 재중조선인운동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

하기에 재중조선공민들은 노래를 불러도 《백두산을 우러러 우리 삽니다》, 《백두산하늘아래 우리 삽니다》와 같은 노래를 즐겨 부르고 춤을 추어도 《백두의 메아리》와 같이 백두령장에 대한 절절한 흥모의 정이 담긴

춤을 추면서 대대로 수령부, 장군부를 누려가고있는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터치고있는것이다.

이들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기관지 《백두-한나》를 발행하여 동포들의 가슴마다에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어려있는 백두산하늘아래서 사는 긍지를 깊이 심어주고

그들을 조국과 하나의 심장, 하나의 숨결로 이어주고 있다.

《이역땅에서도 달리 살수 없는/우리는 빨찌산의 후손/그리운 장군님을 찾아가던/그날의 빨찌산대오처럼/오, 우리는 백두산으로 간다》라는 시를 읊으며 백두산에로의 답사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고있는 재중조선공민들의 가슴속에서 끓어번지고있는것도 백두의 넋과 기상으로 통일조국의 새 아침을 앞당겨줄 불타는 열망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백두산하늘아래에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삶을 누려가고있는 재중조선공민들중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이들의 대답은 하나이다.

우리는 백두산위인들의 참된 아들딸, 주체조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들이라고!

본사기자 홍범식

조국이 강하여 재중총련도 강하다

재중총련결성 25돐을 맞고보니 참으로 감회가 깊다.

돌이켜보면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걸어온 25년간은 우리 재중동포들이 존엄높은 해외공민조직을 가진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통일에국사업에 헌신해온 잊지 못할 나날이었다.

재중총련조직이 있어 동포사회의 화목과 단합이 이룩되고 동포들누구나 생기와 활력에 넘쳐 인생의 참된 삶을 꽃피워올 수 있었다.

재중총련은 우리들에게

조국을 알게 해주고 인생의 참된 길로 이끌어준 선생이나 같다.

오늘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후승리를 위한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강해지고 있다.

얼마전 첫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데 이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발사에 또다시 성공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위력을 만방에 시위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정말이지 조국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이 넘친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미쳐달리고있지만 어렵도 없다. 조국이 강하니 우리 재중총련도 강해지고 동포들도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생활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머니조국과 숨결을 이어주는 재중총련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해나가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룡령지구협회 심양시 지부 회원 리춘자

언제나 조국을 그리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결성 25돐을 맞이한 재중조선공민들의 가슴은 태양조선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된 영예로 끝없이 설레이고 있다.

이역에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한없이 귀중한 어머니조국이 며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 애국의 넋을 굳게 간직하고 살수 있게 하는 마음의 기둥이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지난날 강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정든 고향산천을 떠나 산설고 물설은 이역땅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오던 망국노의 후손인 우리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신 존엄높고 강대한 조국이 있어 《나는 조선사람이다!》라고 긍지높이 웨치며 가슴을 짝 펴고 살아갑니다.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로 하여 오늘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은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없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또 한편의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어 조국이 더욱 강대해지고 우리 재중동포들의 긍지와 자부심도 하늘에 닿고 있다.

우리는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에 우리 재중공민들의 존엄과 행복이 있느냐를 명심하고 언제나 조국을 마음속에 그리며 통일강성국가건설위업에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겠다.

재중동포 김선일



죄악과 오욕의 대명사-박근혜를 여성의 이름으로 해부한다

무릇 여성은 사랑과 정으로 인간사회를 꾸며 새 생명을 창조하고 안아키우는 신성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일러온다.

반만년 유구한 민족사의 갈피갈피를 더듬어보면 우리 조선여성들은 고결한 애국적기개와 높은 사회정치적식견, 풍부한 문화도덕적소양과 외유내강의 기품을 간직하고 자기의 선명한 자옥을 뚜렷하게 새기었으며 오늘도 사회발전을 각방으로 힘있게 추동하는 귀중한 존재로 되고있다.

하지만 이런 신성한 여성세계에 더러운 오점을 남기며 우리 여성들의 한결같은 저주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희세의 요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청와대안방에 틀고앉은 박근혜녀이다.

피박하고 추잡하며 독살스럽기란 이루 형언하기 어렵고 그 우매함과 저능함에서는 누구도 따를자 없는 늑다리할미가 감히 《대통령》이라 칭하고 고개를 잔뜩 쳐든채 온갖 망명을 부리고있으니 이런 해괴한 정치만화가 어디 또 있겠는가.

시집도 못 가고 아이도 낳아보지 못한 반편짜리의 녀자 아닌 녀자, 마녀소굴같은 푸른 기와집에서 민족최대의 우환거리, 악재만을 쏟아내는 박근혜의 추악한 본성을 여성의 시각으로 다시금 낱낱이 해부해보고저 한다.

썩은 뿌리에서 돌아난 독버섯

고금동서에 박근혜처럼 기괴한 가정적배경과 래력을 가진 녀자는 찾아보기 드물것이다.

박근혜의 애비가 《유신》독재자 악명높은 박정희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고있다. 하지만 박정희가 10여년간이나 함께 살던 조강지처를 버리고 정쟁이 한창이던 1950년대초 충청도지역에서 《륙폐지》로 소문난 1등갑부의 딸 룽영수를 후처로 맞아 독버섯씨앗을 뿌리었다는 사실은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박근혜는 지금껏 박정희의 딸딸로 자처해왔지만 실지 버림받은 본처에게도 딸이 있었다고 한다. 박정희는 본처도, 첫딸도 완전히 버리고 박근혜와 그 동생들만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갔으며 제놈의 치사한 가정비사를 될수록 흑막속에 묻어두려고 하였다. 박근혜만 애비가 죽은 후 고별인사를 하겠다고 찾아온 배다른언니를 매정하게 쫓아 버려 부녀간의 친분마저 무참히 짓밟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구린내나는 개인사는 박정희의 추악하기 그지없는 일대기장의 단편에 불과하다. 세상이야 어떻게 돌아가든 오로지 출세와 영달에만 환장한 이자는 민족수난의 세월 뼈속까지 친일근성이 들어찬 《황국신민》 다짜끼 마사오로 변신하였다. 혈서까지 써가며 《충성》을 맹세한 대가로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관동군의 소위, 중위로 복무하게 된 특등친일분자는 항일부대들에 대한 《대토벌》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우고 일본 《천황》의 표창까지 받았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고 나라가 해방되자 친일조선인 다짜끼 마사오의 운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애국노는 재빨리 피문은 일본군복을 벗어버리고 귀국하는 《광복군》 꼬리에 묻어 남조선에 기여들었으며 그후 피뢰군에서 복무하던중 우연히 《남로당사건》에 걸려 체포되자 이번에는 친형의 친지들을 비롯한 수백명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혼자 살아남아 죄악으로 얼룩진 개보다 못한 생을 이어왔다.

출세와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제 죄줄도 잡아먹고 제 꼬리도 매정하게 자르며 조국과 민족을 서슴없이 반역해온 희대의 야심가, 만고역적 박정희는 1961년 5월 군사정변을 일으켜 마침내 남조선의 최고권력을 틀어쥐고야말았으며 군사파쇼독재의 서슬 푸른 칼날로 온 남녘땅을 자주와 민족의 동토대, 인간생지옥으로 만들고 헤아릴수 없는 무고한 사람들의 피와 목숨을 무참히 강탈하였다.

애비의 비렬하고 더러운 과거행적을 두고 세상에 석고대죄해도 시원치 않으니 박근혜는 후안무치하게도 《정치인으로서의 나의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다 아니다. 선배이자 스승이며 라침판관은 존재》라고 공공연히 뉘그러하니 애비의 더러운 혼을 고스란히 넘겨받은 독사가 갈 길은 불보듯 뻔한것이였다.

예로부터 죄와 벌은 한뿌리에서 자란다고 하였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18년을 보낸 남다른 《경력》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무서운 괴변이 련속 들이닥친 악몽같은 나날이라고 할수 있다. 1974년 8월 애미가 저격당하고 5년후에는 애미가 심복이

썩은 총탄에 맞아 비명횡사하였다. 애비, 애미가 다같이 총격에 뿔뿔이 찢어놓은 보통상식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항간에서 《박정희일가의 저주》라고 불리운 이 참변은 군사파쇼독재의 철권통치로 남조선을 중세기적암흑천지로 전변시키고 피비린내나는 살육을 일삼아온 박정희와 그 족속에 내리친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었고 필연적인 운명의 종말이였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선형이량자한 부모의 주검앞에서 반정신 나갔을것이고 권력압투와 모략에 찌든 남조선정치판을 돌아보기조차 두려워했을것이다. 하지만 박근혜는 얼마나 독살스러웠는지 신상에 들이닥친 온갖 참극앞에서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애미의 장례가 끝나고 상복을 벗어던지자마자 애미와 서슴없이 짝을 이루고 《국모》 행세를 하여 세상을 경악케 하였다.

국모란 예로부터 《임금의 안해 또는 어머니》를 이르던 말이다. 그런데 시집도 가지 않은 박근혜가 애미 대신 애미의 배필로 나선다는것은 누구나 납득하기 어려운 괴이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더우기 당시 박근혜로서는 외국의 어느 한 대학에서 류

암수구별 안되는 폐닭

남조선에서는 박근혜를 늙은 암탉이라고 조롱하며 《타그네》라는 해괴한 이름으로 부른다. 지난해 남조선인터넷에는 이 암탉을 풍자한 《새타령(닭전)》이 급속히 전파되는데 높은 해학적수준으로 만사람의 절찬을 받았다고 한다.

흔히 지능지수가 너무 낮으면 《닭대가리》에 비유되지만 그래도 암탉은 영양가높은 알을 낳아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있으니 박근혜를 닭에 비유하면 닭들이 억울하다고 항변할것이다.

이 늙은 암탉은 어울리지도 않는 푸른 기와를 얹은 덩실한 우리에 들어앉아 세상웃기는 짓만 하고있고, 알도 낳을줄 모르는것은 물론 제가 암탉인지, 수탉인지도 분간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꼬끼요》하고 해를 쳐대니 폐닭임이 틀림없다. 남조선에 아무리 정치할 사람이 없기로서니 망조가 들어도 이만저만 들지 않았다.

지능지수가 기억을 3초밖에 못한다는 닭과 비슷할 정도로 너무 낮아 《저능아》라고 불리우는 박근혜는 옆에서 귀땀해준것을 받아적은 수첩이 없으면 입을 가지고서도 한마디도 할줄 모른다고 한다. 머리에 있는 단어수가 100개를 넘지 못하여 《수첩공주》, 《백마디공주》로 불리워지고있다.

지어 수첩에 쓴것마저 제대로 읽지 못하여 《국회의원》 사퇴를 《대통령》 직사퇴로, 5조 8,000억원을 《5.8천억원》이라고 하는가 하면 경제용어로 말해야 될 때는 공개석상에서도 《그거》, 《이거》, 《저거》하며 끄끙 대며 만사람을 웃기고있다. 그래도 《대통령》 흉내를 내겠다고 기자회견이요 뭐요 하는것을 벌려놓지만 즉석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어느 하나도 제대로 대답할수 없어 매번 짜놓은 각본만 외우다나니 《시키는 연기밖에 할줄 모르는 인형공주》

리수경

학중이었다. 하던 공부마저 완전히 집어던지고 당치도 않은 《국모》를 자칭하며 나섰으니 권력에 미친 애비와 딸이 배꼽이 맞아도 그렇게 잘 맞을수 있었겠는가.

박근혜로서는 늙어가는 애미의 권력을 그대로 독차지하고싶었을것이며 박정희 역시 딸년의 주책없는 욕망을 부채질하였을것이다. 이때로부터 박근혜는 일약 《오만한 공주》로부터 《색에 미친 변태성욕자》로 불리우던 애미를 충실히 섬기는 《어엿한 국모》로 둔갑하였으며 박정희의 옆구리에 5년동안 딱 붙어다니면서 철저한 《유신》의 후예로 길들여졌다.

그에게 왜 지금껏 결혼을 하지 않았는가고 물을 필요조차 없다. 철저히 전부터 권력의 맛에 푹 빠져 처녀의 순결과 정절을 권력찬탈에 바친 희세의 랑려를 얻어낸 남자인들 인생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하겠는가. 남조선언론들이 까뵈한테 의하면 박근혜는 사춘기에 들어서기 바쁘게 독재자의 주변을 맴돌던 음탕한 사내들과 섞여들어갔다고 한다. 그 상대가 이미 결혼하였거나 나이가 수십년이상이 될것이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 까뵈한테 애미에게 송사질한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를 그처럼 미워하며 밀어내려 하다가 오히려 그의 총에 애미가 맞아 죽는 화를 당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한 언론편도 《오늘의 박근혜를 키운것은 8할이 아버지와 청와대의 공기》이며 《달리는 살수 없는 청와대의 녀자》라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민족반역과 폐륜패덕의 썩은 뿌리에서 독버섯처럼 돌아나 오랜 세월 권력의 정점을 향해 악을 쓰며 계마차올라간 《유신의 딸》 박근혜, 이 청승맞은 요귀가 다시 청와대를 타고 앉은것은 전대미문의 천재지변에 대한 예고였다.

라는 별칭까지 붙어있다. 걸은 멀쩡한 암탉으로 치장하였지만 《꼬끼요》소리를 내야 위신있는 줄로 아는지 세상이 떠나가게 때없이 목청을 돋구니 정말 소란하기 그지없고 주변의 수탉무리는 가련하게도 언제나 《구구구》하는수밖에 없다.

실례는 부지기수이다. 집권하자바람으로 이전 《정부》기구들을 여당과 합의도 없이 뜯어고치면서 옹고집을 부리며 각계의 비난을 받았는가 하면 제년의 승인없이 움직이려는 기미를 보였다고 하여 임기시작전부터 장관으로 내정되었던 심복을 가차없이 차던졌다. 지어 오래동안 굶은이, 마른일 가리지 않고 총살해가 섬겨온 측근인물조차 《국회》에서 자기 의사를 충실히 집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배신자》라고 독설을 퍼부으면서 여당 원내대표자리에서 강제로 내쫓아 버려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이 독살스러운 늙은 암탉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라는 데 나으면 틀을 차리며 누구의 의견도 들지 않고 자기 수첩에 적혀있는 내용만 받아쓰라고 독을 쓰고 여야가 합의하여 채택한 법안들도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권을 행사하여 휴지조각으로 만드는것쯤은 식은 죽먹기로 여기고있으니 그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짹짹소리도 못내는 수탉들이 가련하기 그지없다.

지금 박근혜의 주변에는 그중 고분고분 《구구구》하는 옛 왕궁의 《환관》같은 수족비서관 몇명이 맴돌고있을뿐이며 주위사람들에 대한 고질적인 의심병마에 시달리는 박근혜는 오로지 《내시》같은 시중꾼들에게만 의지하여 현대사회에서 찾아볼수 없는 원시적인 통치를 하고있다. 오죽하면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리우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기도 박근혜를 한번 만나보기가 쉽지 않다

고 공공연히 토설하고 여당대표마저 《청와대의 얼라(어린이이)》들이 국정을 통괄하고있다고 통탄하면서 박근혜를 향해 《침묵시위》를 하는 해괴한 사태까지 벌어지고있겠는가.

하기에 오늘 남조선에서는 《불통》, 《불안》, 《불신》의 《3불》과 《정치는 불통》, 《경제는 깡통》, 《국정은 먹통》, 《민중은 분통》, 《서민은 고통》의 《5통》이 박근혜통치의 상징어로 되고 《박근혜만 행복하고 절대다수의 국민은 불행한 사회》,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하고 70년대가 복귀된 지옥같은 땅》이라는 저주와 규탄이 천지를 뒤덮고있다.

무능과 독선, 오만불통을 천부적기질로 삼고있는 박근혜가 청와대에 들어앉아 한 일이 있다면 《유신》독재를 되살린것뿐이다.

《대통령》선거때 야당 대표인 여성정치가인 자기에게 맞섰다고 하여 양양블락하면서 복수심에 혀를 깨물고있던 박근혜는 집권하자마자 권력을 총동원하여 그가 당대표로 있는 야당을 백주에 강제해산해치우는것으로 앙갚음을 하였다.

집권 첫해에 벌써 이미 10년나마 합법적으로 존재해온 진보적교육단체 전교조를 《중복의 심장》, 《내부의 적》으로 몰아 사실상의 해산결정을 내리게 하였는가 하면 이어 수천명의 경찰을 내몰아 민주로총 지도부를 들이치고 로조지도성원들을 체포하는 등 로동운동탄압에 발광하였다. 백주에 진보언론매체들을 함부로 폐간시키는가 하면 평범한 민간인여성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것마저 《중복》이라고 몰아대며 《추방》하거나 감옥으로 끌어들였다.

지옥의 망령을 부르는 늙은 마귀

정치인은 희망을 주고 어머니는 생명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는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아 남조선인민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 생명이 아니라 죽음만을 가져다준 마귀할미이다. 남조선에서는 박근혜를 《어머니처럼 머리를 다듬고 아버지땅에 나타난 유령》이라고 하고있다.

은 남조선땅이 박근혜의 표독스러운 살기에 죽음의 왕국으로 변하고 이 늙은 마귀는 무리죽음을 부르는 스산한 유령이 떠도는 곳에서 쾌락을 즐기고있다. 300여명이 단꺼번에 수장된 대규모 해상사고인 《세월》호참사,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남조선 전 지역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사태,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도시들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각종 화재사고, 건물붕괴사고, 충돌사고, 가스루주사고...

온갖 사고와 재난들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는 천문학적수자를 기록하고있다.

더욱 문제로 되는것은 스스로 죽음의 나락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있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하루평균 자살자수는 40명이고 지난 3년간 자살자는 4만 3,600여명으로서 최근 전세계에서 발생한 주요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수보다 2배이상이나 많다. 얼마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밝힌데 의하더라도 2015년 남조선에서의 자살률은 이 기구에 소속된 나라와 지역들의 평균 자살률보다 3배나 되며 자살률증가에서 해마다 세계최고의 기록을 갱신하고있다.

어린이자살률, 40대자살률, 로인자살률, 군인자살률 등 자살과 관련한 모든 항목에서 세계의 첫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는 가운데 부모가 어린 자식들을 제손으로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며 온 가족이 함께 석탄가스를 마시고 동반자살하는것 역시 단연 세계최고기록을 돌파하였다.

여기에 황금만능주의의 산물인 부익부, 빈익빈이 하늘땅차이로 되고 폭력적이며 변태적인 풍조가 성행하여 부모처자간에 서로 죽일내기를 하는 《근친살인》, 일시적기분으로 사람을 죽이는 《충동살인》, 아무런 리유

지금 남조선에서는 《중복》이란 박근혜식 《정치보복의 무서운 칼》이라며 일단 빼들면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고 치를 떨고있다.

오죽하였으면 국제인권단체들까지 나서서 남조선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가장해 야당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있다.》고 규탄하였겠는가.

입이 있어도 말할수 없고 평화적인 집회를 해도 《주위를 소란케 한다.》는 괴상한 죄명에 걸려 탄압하는 바람에 남조선에서는 《침묵시위》, 《1인시위》, 《대자보시위》 등 형형색색의 새로운 시위형태들이 생겨나고있다.

《유신》의 라침판파라 움직이는 박근혜의 파쇼독재통치하에 남조선 정치권은 무능한 권력지상주의자들이 무위도식하면서 인민을 억누르는 파쇼의 란부장으로 화하고 사회는 전대미문의 불안과 혼란, 갈등의 아수라장으로 전락되었다. 하지만 박근혜는 그 전례없는 파공과 재난의 책임을 오히려 알량한 《국회》와 무고한 국민들에게 넘겨쳐뱉으려고 양탈을 부리면서 락대한 고양이상을 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아무데서나 발을 탕탕 구르고 책상을 팡팡 두드려대며 미친년처럼 행악질을 일삼고있다고 한다.

이 압담하고 황당한 사태를 두고 남조선인민들이 《찬바람이 쐬는 부는 한겨울》, 《총체적망국시대》, 《한치라도 안 보이는 암흑정국》이라고 비난하면서 당장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한다고 울분을 토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는 《무작정살인》과 온갖 형태의 살인범죄가 분초를 다투며 일어나고있다. 더욱 참담한것은 한창 미래를 꿈꾸며 자라나야 할 청소년들이 극심한 학업부담과 취업난에 타락하다못해 《수원녀대학생살인사건》, 《통인소녀도막살인사건》 등 끔찍한 중범죄를 저질러 세상을 전복케 하고있는것이다.

죽음의 망령이 배회하는 오늘의 남조선사회는 그대로 박근혜의 자화상이다. 비명횡사한 제 애비와 애미의 액운을 물려받아서인지 그의 몸에서 퍼져 나오는 소름끼치는 살기는 류달리 강하다. 여기에 수십년동안 비정상으로 살아오면서 더 무섭게 독이 오른 그 요살스러운 마귀기운은 남조선인민들의 삶전체를 파탄시키고 죽음의 집단최면을 강요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한때 행어나 치마입은 《대통령》이 날로 각박해지고 험악해지는 사회적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고 치렬한 생존권싸움으로 몸부림치는 서민들의 눈물을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닦아주지 않겠는가 하는 한가닥의 기대를 품었다고 한다. 박근혜년도 《아이를 굶기지 않으려 헌신하는 어머니마음으로 생활정치, 사랑의 정치》를 하겠다는 꿀밭린 소리를 하며 민심을 낚으려 하였다. 하지만 시집도 못 가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본것이란 괴로 얼룩진 《유신》독재통치뿐이여서 이지러질대로 이지러지고 메마를대로 메마른 심술궂은 늑다리 로쳐너가 어찌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정을 알수 있으며 타인의 아픔과 상처를 더듬어줄수 있겠는가. 이것은 얼음우에 꽃이 피기를 기대하는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었다는것을 야말차고 싸늘하기 그지없는 제년의 행적으로 똑똑히 보여주었다.

수백명의 어린 학생들을 한번에 수장시킨 《세월》호참사때만 보아도 그 아이들이 차디찬 바다물속에 안타까이 구원을 요청하고있을 때 외도질에 미친 박근혜는 아무런 관심도 돌리지 않고 7시간동안이나 행적을 감추어 세상을 놀래웠다.

(6 면으로 계속)

(5면에서 계속)

온 남녘땅이 때를 잘못 만나 피어 보지도 못하고 원통하게 서러진 영령들을 추모하여 눈물의 곡성을 울릴 때에도 작근혜는 빨리 사태를 무마 하라고 볼개들에게 악청을 두드리고 어떻게든지 성난 민심을 녹여내려고 《대국민담화》장에 나섰건만 도저히 눈물 한방울 나오지 않아 강렬한 빛조명을 무려 10여분간이나 쬐어 겨우 몇방울의 눈물을 짜냈다고 하니 이런 행렬한이 도저히 녀성일수 없으며 악마중의 악마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집승도 제 새끼를 위해서는 목숨바칠 줄 알고 그래서 《단장의 아픔》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그러나 마귀할미의 얼음장같은 흉악에는 피도, 눈물도 없으며 《한쪽눈에는 실사 눈물이 고여도 다른 눈에는 웃음을 띠는》 악녀이니 남조선인민들이 어찌 한시인들 마음편히 살수 있겠는가.

박근혜는 그 누구를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인으로부터 떠받들리고 보살핌을 받기 위해 태어난 진귀한 《공주》로 자신을 착각하고있는 정신병자이다. 하기에 그는 남들이 죽어가 건말건 사회가 망하건말건 아랑곳하지 않으며 하루에도 몇번씩 웃을 갈아입고 머리를 치장하면서 남들이 자기를 《우리러》보는데서 락을 찾고있는 전형적인 21세기 돈 끼호떼이다.

오죽하면 텔레비존에 나와 몸무게와 허리둘레를 자랑하는 늙다리의 추한 꼴꼴을 본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자신의 몸매나 오메만 신경쓰는 녀성에겐 나라를 맡긴것이 잘못》이며 그에게 지지표를 던진 자기 손을 자르

고싶다는 개탄이 나오겠는가.

청와대급고를 털어 못생긴 상통과 찌그러진 몸매를 가꾸는데 온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에 남조선경제성장률은 4%대에서 2%대로 떨어지고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액》의 64.5%에 달하는 1조US\$에 육박하였으며 전체가정들이 지고있는 빚이 1조 2,000억 US\$를 돌파하는 등 경제는 사실상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경제랴구화와 사회불평등의 심화로 1%의 재벌과 특권층을 제외한 중소기업들과 일반주민들은 파산과 극도의 생활고에 직면하고있으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속에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부자로 태어나야만 살아갈수 있는 나라》라는 저주가 터져나오고있으며 특히 젊은층속에서는 《헬조선》탈출운동(지옥같은 남조선을 벗어나는 운동)이 대세를 이루고있다.

하지만 진짜 《헬조선》탈출구는 어디인가. 그것은 죽음의 전도사이며 늙은 마귀인 박근혜를 하루빨리 분거지인 지옥으로 쫓아보내는것 일뿐이다.

요즘 외로움과 적막에 싸여있는 푸른 기와아래의 구궁궁궐에 밤이면 지옥으로 안내하는 누렁개들의 장송곡이 더 처량하게 울린다고 한다. 민심은 완전히 등을 돌려댄지 오래고 친지도, 혈육도, 측근도 찾아들지 않는 청와대는 누가 표현했듯이 《산자와 죽은자가 공유하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공간》으로 되었으며 그안에서 정치승장이 정신도, 육체도 완전히 썩어가고있는것이다.

외세앞에서는 창녀, 동족에겐 악귀

국제무대를 싸다리며 실세없이 꼬리를 흔들고 암내를 풍기는 가히 《세계적수준》이라고 할만 한 창녀가 다름아닌 박근혜이다. 늙매잔뜩 바람난 암개처럼 여기저기에 미친듯이 달려가 안기며 교태를 부리고 구린 몸뚱이를 섬겨바치는 꼬락서니를 보면서 치떨리는 격분을 금할수 없다.

사실 인륜을 뒤로 하고 료락가에서 몸을 파는 녀성들을 창녀라고 하지만 어쩔수없이 그 길에 나선 그들의 가슴속에도 말 못할 사연과 일말의 아름다움이 간직되어있다. 그들의 내면에 남아있는 나뭇대로의 정과 사랑이 문학작소재가 되어 《동백꽃아가씨》나 《비계덩어리》와 같은 세계적명작들도 나왔을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런 녀성들의 반례에조차 들수 없는 더러운 정치매춘

히 틀린데가 없다. 골치아픈 일이 생길적마다 《도피행각》에 나서는것은 주대없는 내시들이 득실대는 청와대보다 이 사내, 저 사내 품에 부담없이 안길수 있는 해외가 더 재미나는 《창녀의 활무대》이기때문일것이다.

문제는 박근혜가 조석으로 웃을 이것저것 갈아입고 이 서방, 저 서방의 사타구니짤에 붙어돌아가며 추한 몸만 파는것이 아니라 민족을 팔아먹고 동족을 해치기 위해 젓먹은 힘까지 짜내고있는데 있다.

청와대안방에 들고있자마자 매춘의 고향인 미국에 들어가 오바마의 덕택에 착 달라붙은 박근혜는 붙여우상통을 하고 《북이 핵무기에 매달려서는 생존할수 없다.》느니, 《북이 변화하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해야 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기등서방의 든든한 《보호》를 구걸하였다. 뒤이어 이웃나라들을 찾아간 박근혜는 《북의 병진로선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고 스스로 고립된 자초할것》이라느니, 북에 압력을 가해달라느니 하고 또다시 온갖 악다구니질을 하며 어떻게 하나 군사방대력을 늘여보려고 가스롭게 놀아댔다. 역대 집권자들이 밟지 않았던 멀고 작은 나라들까지 가림없이 찾아다니며 민족을 팔아 치장거리를 마련할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서슴지 않는 특등창녀다운 특기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하지만 고도로 계산된 정치방식과 자국중심의 리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냉정한 국제외교무대는 정신병자로 치부되는 늙다리색녀의 장단에 고분고분 놀아나지 않았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정치창녀가 세계도처에서 벌려놓은 청승맞은 굶돌이의 대가를 피눈물로 치르어야 했다.

미국의 대조선압박정책을 지속시키는 대가로 용도폐기된 무기를 최신형이라고 포장하여 사들이는데 2015년 한해에만도 90억US\$를 당진하고 상전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지 않겠다고 양탈하며 대신 섬겨바치는 돈만 보더라도 해마다 수백억 US\$가 넘는다.

그뿐이 아니다. 군사에는 알짜 청맹과니인 주제에 미국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핵전쟁장비들까지 닥치는대로 끌어들이고 나중에는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인 《싸드》까지 배치하자고 졸라대는 바람에 조선반도는 대국들의 패권다툼의 소용돌이에 급속히 빠져들고있다.

얼마전에는 백주에 눈섭 한오리 까딱않고 민족의 천추의 한인 일제의 성노예범죄를 무마시키는 만고대역죄까지 꺼리낌없이 감행하였으니 박

근혜야말로 전체 조선녀성들이 달라붙어 칼탕쳐죽여도 시원치 않을 짐승같은년이다.

하키야 세상에 가장 지지분한 창녀이니 일본의 성노예범죄의 악랄성과 야만성을 알래야 알수도 없고 분노할수도 없을것이다.

오죽했으면 해외동포들도 박근혜에게 《기등서방을 둔 카멜레온》, 《계저분한 꼴이 너무 창피스러워 눈 뜨고 볼수 없다.》고 침을 뱉고 보수 언론들까지 《국민이 뽑고 미국이 쓰는 한국대통령》이라고 조소하고있겠는가.

외세에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몸을 들이대는 탕녀이지만 동족에 향해서는 천하의 악귀로 변신하는 악녀중의 악녀가 또한 박근혜이다.

아이 못 낳는 녀자가 밤마다 톱꿈꾼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망령든 늙다리계집이 날마다 꿈꾸며 고대하는 것은 북이 오늘 망할까 래일 망할까 하는 고약한 망상뿐이다. 꿈자리가 사나와지면 《종북》을 쫓치고 점괘가 불길하면 《흡수통일》을 부르짖는 추악한 꼴꼴은 동화 《백설공주》에서 나오는 심보사나운 왕비를 연상케 하고있다. 허구한 날 신기한 거울 앞에 서서 누가 제일 아름다운가고 묻고는 불같은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여 남몰래 늙은 마귀할멈으로 변신해 백설공주에게 독사과를 먹이는 흉칙한 왕비도 박근혜에 비하면 차라리 천사라고 할수 있다.

박근혜는 동족이 잘된다는 소리만 들어도 배가 뒤틀려 까무라치고 무슨 시비거리라도 만들어 주둥이에 게거품을 물고 고아대는 말기지랄증세를 보이고있다.

한치앞도 내다볼줄 모르고 세상만사가 제 생각대로 되는줄 알고있는 어리석은 마귀녀는 동족의 평화적경제건설의 마치고소리도 포소리로 착각하고 하늘에 대고 주먹질하는가 하면 동족의 선의도 《위장평화공세》로 헐뜯고있다.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발사성공소식에 온 세계가 경탄과 환영의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있을 때 박근혜는 완전히 얼얼한 나간 미국상전과 함께 미친듯이 날치면서 그 어느 대결광신자도 감행하지 못한 극악무도한 반동일대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있다. 세계적인 우주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북이 쏘아올린 인공지구위성이 정상적으로 자기 궤도를 돌고있다고 하는데 유독 박근혜만이 《창거리란도미싸이》이라고 왜가리청을 두드리고있다.

머리가 완전히 돌아버린 이 년은 《북핵이 남쪽을 겨냥하고있

다.》,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것은 우리뿐》이라며 가슴을 마구 쥐여뜯다못해 국제사회가 달라붙어 《북정권이 생존할수 없고 붕괴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러자면 저들부터 앞장서야 한다고 악담을 토해내고 지어 사나운 독이발로 북남관계의 마지막 명맥인 개성공업지구의 솜통마저 완전히 끊어놓았다. 그런데 도끼로 동족의 《명줄》을 끊는다는것이 그만 제 발등을 찍어놓고말았으니 가관이 아닐수 없다.

지금 내외여론은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대국의 출현으로 세계정치구도가 달라지고있는 때에 박근혜대만만 대세를 바로 보지 못하고 스스로 지옥의 함정에 빠져들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이 엄연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바다건너 깡패서방만 일구울 심 바라보면서 단말마적으로 날뛰고 있으니 우리 민족에게는 비극중의 비극이요, 세상사람들에게는 돈주고 어디서도 볼수 없는 참으로 희귀한 구경거리이다.

화냥질에 이끌리 나면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 개죽음을 당하는 법이다. 버림받은 주검은 문힐 곳도 없다. 하기에 예로부터 몸주고 뺨맞는 가련한 창녀신세라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껏 인간세상에 독기를 뿌리며 온갖 해악을 몰아오는 청와대마귀에게 최후심판의 날이 다가오고있다. 하늘에 닿은 만고대죄는 청와대에 날벼락으로 떨어질것이며 선대의 기구한 운명이자 곧 박근혜의 비참한 종말로 이어질것이다.

그 황천길에 눈물 한방울 뿌려줄 사람이나 과연 있겠는가.

* * *

온갖 악명을 떨친 박근혜가 유독 한가지만은 잘한 일이 있다. 특등창녀로서 씨종자도 명백치 않고 독재자로 악명을 떨친 애비의 피까지 섞인 더러운 《유신의 후예》를 남기지 않은 바로 그것이다. 들도 없는 요귀의 피와 혼을 이어받은 후대가 태어났다면 남조선은 오늘과 같은 《혼용무도》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수습할수 없는 말세기적파국을 맞게 되었을수 있다. 회세의 악녀가 녀자의 탈을 쓰고 어머니의 대렬에 들어서지 못한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박근혜라는 그 수치스러운 이름을 신성한 녀성들의 명단에 더이상 남겨둘수 없다.

온갖 죄악과 오욕의 대명사인 박근혜는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전세계 녀성들의 이름으로 단호히 징벌해야 한다.

말세에 남한말의 활판가위 두바리
지난 3월 1일 남조선집권자는 그 무슨 《기념사》라는데서 《북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싸일도발을 한 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느니, 《비핵화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압박을 계속해나갈 것이다.》느니 뭐니 하면서 입에 게거품을 물고 녀 두리를 해댔다.
그러나 하던 저들이 마치도 북남간의 《신평》 조성과 《평화통일기반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거나 한것처럼 희뻘게 놀아댔다.
북남관계를 완전히 깨버린 망령든 로파의 뻘뻘한 녀두리, 공화국의 핵위력에 기겁한 정신병자의 지랄발광이 아닐수 없다.
한마디로 내탓 아닌 남탓타령이다.
박근혜로 말하면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

동선언과 10.4선언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집권 첫날부터 북남관계개선에 빗장을 지르고 《체제통일》, 《흡수통일》의 개꿈만 꾸어온 천하의 대결광, 6.15의 육동자마저도 료넨 살인마귀 늙다리로 통하는 극악한 회세의 악녀이다.
오죽하였으면 남조선 각계에서도 박근혜를 두고 《치마두른 백정》, 《입만 열면 네탓타령하는 말광녀》, 《신천이 한 일제품으로 해제끼는 파피파란의 능수》라는 말들이 울려나오겠는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로망줄에 든 할망구 박근혜는 공화국의 정당당한 국력강화까지 걸고 들면서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니, 《단호한 대처》니 뭐니 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그 무슨 《체제》나 《압박》, 《국제공조》로 공화국을 어찌보겠다는 것자체가 말세에 접어든 마귀할미의 개꿈이겠다.
공화국의 핵은 그 누가 내러놓으라고 해서 내러놓는것도 아니며 또 그 어떤 흥정물도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과 도전으로부터 자

기의 사상과 제도를 지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최상의 경지에 세워주는것이 공화국의 강위력한 핵억제력이다.
이러한 공화국의 핵을 부질없는 《제재》나 《압박》따위로 어찌보려하는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불과한것이다.
옛말에 사람이 저승길을 가까이 할수록 잃었던 리성이 되찾아오고 죄없이 살고픈 열망이 강렬해진다 한다.
하지만 늙을수록 더욱더 강렬해지는것이 남조선집권자의 동족대결, 체제대결야망이다.
남조선집권자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한사코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던 제 예비 박정희가 간 길이 어떤 길이고 역대 반공화국대결광들이 간 길이 어딘가를 말이다.
민족의 준엄한 철추를 받고 지옥의 불도가니에 빠져들어갈 자멸의 시각을 조금이라도 연장해보려거든 동족대결에 달아오른 열기를 식힐 필요가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시

유 일 《 처 방 》

김 송 립

<p>요즘 항간에 나도는 흥흥한 소리 《청와대안주인》이 몸쓸병에 걸 렸단다 《북핵, 북미싸일공포증》에 히스터리적 《발작증》 걸려 제명을 살긴 이미 코집이 틀렸 다나</p> <p>비위를 맞추어 온갖 《성의》 다 했다만 나날이 증세는 말기로 치달아 《새누리당》의원제씨들도 이젠 지쳤나봐 《대북제재》 미친듯이 고아대는 《안주인》의 매없는 발작도 게슴츠레 바라 볼뿐</p> <p>홀로 사는 그녀 그 처지 하도 불쌍하고 처량해 죽은자 내놓고 다 고친다는 《명의사》 삭정이같은 《안주인》 팔목 짊어 도 보고 반쯤 뜯은 눈까풀 뒤집기도 해보 았지</p>	<p>뼈속까지 밴 《동족대결광증》에 독쇠운 개구리처럼 뱃뻗혀진 《안주인》의 앙상한 가슴에 여기저기 청진기 대보던 의사 도리머리를 짓더니 가망이 없군!—</p> <p>그렇수밖에! 동족에겐 《사냥개》라 피투성이 주둥이 아물날 없고 미국에겐 《삼살개》라 아양 떨어 꼬인 다리 펼길 없고 생각은 《독선》 결론은 《독 단》 골통부터 발통까지 모두 병들었 으니</p> <p>늦어도 너무 늦었지 경제는 《강통》 국정은 《먹통》 민중은 《분통》 서민은 《고통》... 《불통정치》 3년세월 모든걸 두 들겨째느라 얼마나 로심초사한 《안주인》</p>	<p>이더나 엄마 한번 못뵈본 망년의 《로 처녀》 세상과 담쌓고 용약 홀로 사는 그녀는 독수공방의 《고독녀》 외롭게 그쯤 살았으면 오래도 살았군</p> <p>그래도 살겠다고 《명약》이란 《명약》 다 잡쉬 보았다지만 《심술증》, 《우울증》, 《피해 망상증》... 약없는 못된 병을 무슨 수로 고 칠텐가</p> <p>《총실》한 부하들아 《안주인》이 고통에 뒤틀러우며 지랄하는 꼬락서니 두고만 볼 레나 편안히 저승의 안식처에 자리잡 도록 사약이나 고이 달여올려 도리를 다하게나 그게 마지막 유일한 《처방》이지</p>
--	--	---

시간으로 보는 판이한 두 모습



온 행성에 또 한차례의 충격파가 일어났다. 지난 1월 수소탄시험으로 국제사회를 떠들썩하게 했고 온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북이 불과 30여일만에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또 다시 세계의 초점을 모았다.

북의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당중앙은 위성발사를 승인한다

2016년 2월 7일 오전 9시에 발사할것!

김정은
2016. 2. 6》이라는 친필명령을 하달 하시였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 무변방대한 우주를 향하여 거세찬 불줄기를 뿜으며 조선의 4번째 위성이 성파적으로 날아올랐다.

9시, 북은 이 시간을 또 한차례의 대승리의 시간으로 역사에 아로새겼다.

반대로 북은 이 시간을 적대세력을 특히는 미국에 또 한차례의 악몽의 시간으로 새겨주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미국에 있어서 이 9시는 어떻게 해서나 한사코 가로막으려 했던 시간이 아닌가.

조선이 잘되기를 바라지 않고 발전하기를 원치 않는 미국은 북이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리겠다는 계획을 통보하였을 때부터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이 지구관측위성을 쏘아올리는 그 시간을 눈을 편히 뜨고 보고만 있어야 했다.

지난 1월 조선에서의 첫 수소탄시험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오전 10시 북이 수소탄시험을 진행한 그 충격적인 시간은 미국에 있어서 절망적인 시간이었다. 강력한 핵보검을 틀어쥔 북이 승자의 환호를 터칠 때 미국은 저들의 핵독점에 파열구를 낸 그 시간을 두고 패배의 고뇌를 삼켜야 했다.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조미대결전은 북에는 승리를 준 시간이요 미국에는 패배를 준 시간의 연속이었다.

지난 1월 6일 조선에서 첫 수소탄시험을 진행한 오전 10시라는 그 의미에 대해 먼저 보기로 하자.

세간에서는 그 10시의 의미에 대해 별로 의미를 돌리지 않았지만 실지 그 시간은 미국에 있어서 기억하기조차 싫고 새겨볼 수록 수치스러운 시간이었던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조선의 판문점에서는 정전협정조인식이 있었다.

미국력사상 패전이란 말자체를 모르고 승전만을 거듭해왔다고 자처하던 오만무례한 미국이 청소한 공화국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문에 도장을 찍어야 했던 그날은 미국의 전쟁력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역사에 기록

되었고 항복서와 같은 협정문에 서약을 해야 했던 그 시간 10시는 미국이 처음으로 세계대전앞에서 특특히 망신을 당한 시간이었다.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유엔군》사령관이었던 클라크는 정전협정조인문에 서명하고나서 이렇게 고백하였다.

《나는 정부의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력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는 영예롭지 못한 이름을 띠게 되었다. ...승리없는 전쟁, 이것은 미국력사에 없는 술어이다.》

그 10시가 2016년 1월 6일 10시에 재현되었다.

미국에 있어서 핵무기는 저들의 독점적패권과 전횡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실지 미국의 핵공같은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동반속에 빠뜨렸고 미국의 핵위협을 당하는 나라들은 아직 지구상 그 어디에나 있다. 그런 미국의 핵무기독점에 통쾌하게 파열구를 낸것이 바로 북의 수소탄시험이었다.

더우기 수소탄은 원자탄에 비해 비할바없는 위력을 가지고있으며 이를 보유한 나라는 불과 다섯손가락에 든다. 이런 강위력한 수소탄을 북이 보유하고 있다는것은 미국에 있어서 청천벽력같은 죽음의 선고와 같았다.

1950년대의 7월 27일 10시에 패전을 인정하는 조인문에 미국이 도장을 찍게 한 북이 2016년 1월 6일 10시에는 미국의 포악한 핵무기독점력사를 끝장내는 멸망의 도장을 보란듯이 찍어놓았다. 이것은 또 한차례의 조미대결의 승리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오늘에 와서 미국은 핵을 가지고 공화국을 일방적으로 위협공갈할수 없게 되었으며 끝없는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미제가 핵을 저들의 독점물로 여기며 핵을 쥐고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되었으며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으로 되었다고 하시였다.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 《핵무기》신화가 영영 맥을 추지 못하게 수소탄의 폭음으로 호되게 답새긴 조선의 10시.

그 시간은 부국강병을 바라던 민족의 숙원이 풀린 시간이며 미국을 또 한차례 굴복시킨 승리의 시간이며 조선의 힘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력적인가를 온 세상앞에 보여준 시간이다.

조선이 우주를 향해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린 9시라는 그 시간에도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

오늘도 세인들은 1960년 대말 조선반도에 일어났던 《푸에블로》호사건을 생생히 기억할것이다.

당장 조선반도에 전쟁이 일어날것 같은 일촉즉발의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그 시기.

미국은 조선령해에서 저들의 간첩선이 나포되자 위협공갈과 우회적압력으로 공화국을 굴복시켜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공갈이나 압력도 통하지 않게 되자 조선해역에 항공모함과 원자력잠수함을 비롯한 술한 함선들을 들이밀고 핵탄을 탑재할수 있는 비행기들도 수많은 띄워놓았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던지 미국은 《나토각료리사회》와 지난 조선전쟁참가국들의 모임까지 열고 《대책도의》를 하느라고 분주함을 피워뒀으며 하수인들의 입까지 동원하여 공화국에 대한 모종의 《폭격》, 《보복》, 《최후통첩》을 운운하였다.

그러나 북은 끄떡하지 않았다.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바로

이것이 행성에 올린 조선의 대답이었다. 결국 전쟁접경으로 치달았던 조선반도의 정세는 미국이 사죄문을 내는것으로 끝을 보게 되었다.

1968년 12월 23일 오전 9시 판문점에서는 미국정부 대표하는 미군장성이 미합중국정부의 명의로 된 사죄문에 서명하고 조선정부에 제출하였다. 불법무도한 간첩행위를 한 저들의 파렴치성에 대해 애당초 사죄를 할 대신 기고만장하여 당장 전쟁을 일으킬것처럼 허장성세하던 미국이 사죄문을 들고와 북에 바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날의 9시. 그때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징벌을 받고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으며 세계의 면전에서 특특히 망신하였다고 하시였다.

군사, 정치, 도덕적인 참패를 당했던 미국은 오늘날의 9시에는 과연 어떤 참패를 당하였는가.

인류가 무한대한 우주공간에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린 때로부터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위성을 자기의 운반로켓으로, 자기의 발사대를 가지고 케도에 진입시키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의 종합체라고 할수

있는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리는 나라는 많지도 실지 자기의 힘으로 쏘올리는 그런 나라는 별반 없다. 그러나 북은 100%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로 첫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렸으며 편이어 오늘까지 4번째의 위성을 저 우주에 쏘올려 명실상부한 우주강국이 되었다.

미국의 가증되는 제재와 압력속에서 우주강국의 위상을 과시하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북의 인공지구위성 발사는 아무리 미국의 압력과 제재가 횡포하다 해도 그것을 얼마든지 타파해나갈수 있다는 자기 힘에 대한 든든한 믿음의 발현이며 또 그 힘을 과학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담보한다는 배심과 자부의 발현이기도 하다.

북이 과학기술의 열세국으로 남기를 바라며 그로 하여 종당에는 저절로 무너지거나 손을 들고 나왔기를 바랬던 미국의 허황한 망상은 보기 좋게 산산조각이 났다. 결국 미국은 1968년 12월 23일 오전 9시에 세계면전에서 조선으로부터 군사, 정치, 도덕적인 참패를 당했다면 2016년

2월 7일 오전 9시에는 또 다시 조선에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게 되었다.

9시와 10시라는 이 시간에는 보다싶이 막중한 의미가 담겨져있다. 북에 있어서 승리와 영광의 시간으로 되는 이 9시, 10시가 미국에 있어서는 수치와 모멸, 치욕과 패배의 부한 우주강국이 되었다. 과학기술적우세는 령강들의 독점물이 아니라라는것을 북은 말이 아니라 인공지구위성의 퇴성으로 보여주었다.

미국의 가증되는 제재와 압력속에서 우주강국의 위상을 과시하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북의 인공지구위성 발사는 아무리 미국의 압력과 제재가 횡포하다 해도 그것을 얼마든지 타파해나갈수 있다는 자기 힘에 대한 든든한 믿음의 발현이며 또 그 힘을 과학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담보한다는 배심과 자부의 발현이기도 하다.

북이 과학기술의 열세국으로 남기를 바라며 그로 하여 종당에는 저절로 무너지거나 손을 들고 나왔기를 바랬던 미국의 허황한 망상은 보기 좋게 산산조각이 났다. 결국 미국은 1968년 12월 23일 오전 9시에 세계면전에서 조선으로부터 군사, 정치, 도덕적인 참패를 당했다면 2016년

2월 7일 오전 9시에는 또 다시 조선에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게 되었다.

9시와 10시라는 이 시간에는 보다싶이 막중한 의미가 담겨져있다. 북에 있어서 승리와 영광의 시간으로 되는 이 9시, 10시가 미국에 있어서는 수치와 모멸, 치욕과 패배의 부한 우주강국이 되었다. 과학기술적우세는 령강들의 독점물이 아니라라는것을 북은 말이 아니라 인공지구위성의 퇴성으로 보여주었다.

미국의 가증되는 제재와 압력속에서 우주강국의 위상을 과시하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북의 인공지구위성 발사는 아무리 미국의 압력과 제재가 횡포하다 해도 그것을 얼마든지 타파해나갈수 있다는 자기 힘에 대한 든든한 믿음의 발현이며 또 그 힘을 과학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담보한다는 배심과 자부의 발현이기도 하다.

북에 있어서 승리와 영광의 시간으로 되는 이 9시, 10시가 미국에 있어서는 수치와 모멸, 치욕과 패배의 부한 우주강국이 되었다. 과학기술적우세는 령강들의 독점물이 아니라라는것을 북은 말이 아니라 인공지구위성의 퇴성으로 보여주었다.

미국의 가증되는 제재와 압력속에서 우주강국의 위상을 과시하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북의 인공지구위성 발사는 아무리 미국의 압력과 제재가 횡포하다 해도 그것을 얼마든지 타파해나갈수 있다는 자기 힘에 대한 든든한 믿음의 발현이며 또 그 힘을 과학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담보한다는 배심과 자부의 발현이기도 하다.

북이 과학기술의 열세국으로 남기를 바라며 그로 하여 종당에는 저절로 무너지거나 손을 들고 나왔기를 바랬던 미국의 허황한 망상은 보기 좋게 산산조각이 났다. 결국 미국은 1968년 12월 23일 오전 9시에 세계면전에서 조선으로부터 군사, 정치, 도덕적인 참패를 당했다면 2016년

2월 7일 오전 9시에는 또 다시 조선에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게 되었다.

9시와 10시라는 이 시간에는 보다싶이 막중한 의미가 담겨져있다. 북에 있어서 승리와 영광의 시간으로 되는 이 9시, 10시가 미국에 있어서는 수치와 모멸, 치욕과 패배의 부한 우주강국이 되었다. 과학기술적우세는 령강들의 독점물이 아니라라는것을 북은 말이 아니라 인공지구위성의 퇴성으로 보여주었다.

미국의 가증되는 제재와 압력속에서 우주강국의 위상을 과시하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북의 인공지구위성 발사는 아무리 미국의 압력과 제재가 횡포하다 해도 그것을 얼마든지 타파해나갈수 있다는 자기 힘에 대한 든든한 믿음의 발현이며 또 그 힘을 과학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담보한다는 배심과 자부의 발현이기도 하다.

북에 있어서 승리와 영광의 시간으로 되는 이 9시, 10시가 미국에 있어서는 수치와 모멸, 치욕과 패배의 부한 우주강국이 되었다. 과학기술적우세는 령강들의 독점물이 아니라라는것을 북은 말이 아니라 인공지구위성의 퇴성으로 보여주었다.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

일간망둥이의 가련한 추태

최근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한국형우주발사체》발사에 대해 떠들어 대고있다. 보수패당은 지난 2010년부터 1조 9000여억원의 천문학적자금을 들여 개발하고있는 《위성발사체》의 시험발사를 다음해 12월에 하겠

다고 공언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상엔진연소시험을 거의 매주 진행한다 어쩌다 하면서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공화국의 정당한 인공

지구위성발사를 《탄도미사일발사》라며 집요하게 걸고들고 반공화국 《제재》소동에 미쳐날뛰는것이 누구인데 《제재》를 떠드는 그 입으로 저들도 《위성발사체》를 시험발사하겠다고 하니 낮가죽이 이만저만 두렵지 않다. 저들은 해도 되고 동족이 하면 《위협》이라고 하는것이야말로 속통이 못먹은 대결광신자들의 비렬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공언히 자행되고있는 불공정성과 2중성의 극치를 보여주는것이다. 지난 2월 7일에 발사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우주로 날아오른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들은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기 위한것이였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과 로씨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저명한 과학자들과 우주연구기관들이 한결같이 인정하고있다.

로켓이 아니라 《요술막대기》로 우주에 올려졌는가. 또 인공지구위성을 나르는 운반로켓이 《탄도미사일》이라면 《광명성-4》호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우주로 날아오른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만을 걸고드는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망둥은 식칼을 《총창》이라고 우겨대는 정신병자의 추태를 런상시키고있다.

해도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존엄높은 지위는 변할수 없으며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권리인 위성발사를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사대굴종행위 규탄

남조선의 경상남도 시 민사회단체들이 3.1인민봉기가 있는 때로부터 97년이 되는 1일 집회를 가지고 박근혜패당의 친일사대굴종행위를 규탄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단체들은 선언문에서 반민족사대매국세력들이 청산되지 않고 여전히 부귀영화를 누리는 반역사가 이어지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선언문은 친일파들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 《정권》하에서 세계적인 망신으로 되는 성노예문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것은 평생 피눈물을 흘려온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은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위안부문제해결의 전면 무효》 등의 글이 새겨진 대형현수막을 앞세우고 시위투쟁을 벌였다.

본사기자 김철민



그런데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탄도미사일》발사라 그 추종세력이 보수패당의 《위성발사체》개발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짝소리도 하지 않고있는것도 문제이다. 이는 국제무대에서 공

공언히 자행되고있는 불공정성과 2중성의 극치를 보여주는것이다.

그런데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탄도미사일》발사라 그 추종세력이 보수패당의 《위성발사체》개발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짝소리도 하지 않고있는것도 문제이다. 이는 국제무대에서 공

제반 사실들은 국제문 제에서 정의와 공정성을 준수하여야 할 유엔무대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집행하는 꼭두각시들의 출판에 불과하며 《제재결의》라는것이 미국의 반공화국고립압살소동에 《합법》의 모자를 씌워놓은 모략문서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하고있다.

하지만 그 누가 뭐라고

이 초보적인 현실조차 분간하지 못한채 미국이 벌려놓은 광대국의 맨 앞장에서 란동을 부리면서 《제재》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남조선 보수패당의 망둥은 지금 남사람의 조소만 자아내고있다. 그 주제에 《위성발사체》개발을 부르짖고있는 남조선보수패당에게 따끔히 충고한다.

미국의 꼭두각시박에 못되는 식민지주주의 가련한 처지를 망각하고 외세의 도움으로 《위성발사》의 개꿈만 꾸고있는 남조선보수패당이야말로 100% 자체의 힘과 기술로 쏘아올린 공화국의 주제 위성이 민족의 재부라는 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일간망둥이가 분명하다.

본사기자 김철민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판낸 박근혜는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온 민족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2일 박근혜는 피뢰국회를 압박하여 극악한 동족대결악법인 《북인권법》과 《테로방지법》을 강압적으로 조작해내는 또 하나의 만고 대죄악을 저질렀다.

박근혜패당이 《북인권법》과 《테로방지법》을 조작한것은 우리에게 대한 천추에 용납 못할 중대도발이며 북남관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반민족적특대범죄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최상의 경지에서 실현하고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사회,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 인민의 지상락원인 우리 공화국에는 그 무슨 《인권》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에 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그에 대해 한결같이 인정하면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전면적으로 구현된 우리 제도의 참모습에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공화국에는 한번도 와보지도 못한 남조선의 시정배들과 국제인권모략꾼들이 추악한 범죄행위를 감행하고 조국과 혈육도 서슴없이 버리고 도주한 한층도 못되는 인간

쓰레기들이 꾸며낸 거짓자료에 근거하여 그 무슨 《인권법》을 조작해내고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뻔뻔스러운 정치기만적이고 내외어론에 대한 로골적인 우롱이다.

더우기 우리를 절고 《테로방지법》을 조작해낸것은 국제테로의 왕초인 미국상전도 닳을 불힐 회세의 정치만화로서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흐리게 하고 우리에게 대한 고립압살의 포위환을 좁혀보려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권폐허지대, 살인과 테로가 성행하는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로 전락시킨 박근혜패당은 애당초 인권이니, 테로니 하는것을 입에 올릴 자격도 체면도 없다.

원래 오물장에는 오물이 쌓이기 마련이다.

우리 공화국에서 죄를 지은 인간 오물들이 남조선으로 도주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더욱 청결해졌으며 남조선오물더미는 더욱 더러워져 악취를 풍기고있다.

박근혜가 이 오물장우에 치마까지 걷어올리고 앉아 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대화원을 오히려 시비질하고있으니 정신병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더우기 민주와 진보, 민족의 화

합과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백색테로, 정치테로를 공공연히 일삼고 우리 공화국의 주민들을 백주에 유인암치하여 남조선으로 끌고가 동족대결에 내몰고있는 박근혜패당이 《테로방지》에 대해 입에 올리는것이야말로 삶은 소대거리도 양친대소할 일이다.

인권유린의 원흉도 박근혜이고 테로의 왕초도 다름아닌 박근혜이다.

박근혜는 이번 악법의 조작으로 극악한 대결광신자, 회세의 파쇼폭군, 만고역적의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우리는 이미 《북인권법》과 《테로방지법》조작은 우리에게 대한 전면 체제대결선언, 전쟁도발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라는것을 선포하였다.

우리 천만군민은 박근혜역적패당이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감히 도전하여 전면도발을 걸어온 이상 단호하고 철저한 대응조치에 진입하게 될것이다.

만고역적 박근혜는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되는 첫번째 대상이 될것이며 그에 동조한자들도 응당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빈말을 하지 않는다.

주제 105(2016)년 3월 4일 평양

동족에 대한 전면대결선언

지난 2일 남조선의 동족대결세력들은 《국회》에서 극히 도발적인 《북인권법》이라는것을 끝끝내 강행통과시켰다.

《북인권법》조작은 공화국의 존엄과 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고 동족과의 체제대결을 법제화한 반민족적망동이다. 또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할데 대한 북남합의를 완전히 뒤집어엎고 북남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격폐와 대결의 극단으로 몰아넣은 반통일적망동이다.

이번에 조작된 《북인권법》은 온갖 터무니없는 허위와 날조, 모략과 음모로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시비중상하며 북남대결을 고취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북인권법》을 끝끝내 강행통과시킨것은 날을 따라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찬란한 현실에 질겁하여 어떻게 하나 그 영향력을 막고 저들의 반인민적, 반인권적악행에 분노한 민심의 초점을 판데로 돌리고 동족대결을 정당화하여 사면초가의 통치위기에 벗어나보려는데

그 흉악한 속심이 있다. 남조선을 미국의 현대판 식민지로 통채로 내맡긴 친미사대매국노, 미군이 남조선인민들을 대상으로 온갖 치명리는 반인권적범죄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해도 눈 한번 흘리지 못하는 식민지노복, 독재의 거수기에 불과한 남조선 《국회》가 주체념제도 자주로 존엄높은 공화국에 대고 《인권》나발을 불어대는 것이야말로 정신병자들의 발광이 아닐수 없다.

《북인권법》은 그 성격과 목적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아도 악명높은 《보안법》보다 더 극악한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인륜적악법이다.

남조선당국은 범죄적인 《북인권법》을 통하여 공화국의 주민들에 대한 리모략전을 비롯한 대결과 모략책동을 정당화하고 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허황하기 그지없는 《급변사태》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망상을 실현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반통일파 쏘악법인 《보안법》도 부추켜서 상대방의 체제 《붕괴》를 노린 《북인권법》을 끝끝내 조작해낸것은 그들이 얼마나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는가를 다시한번 만천하에 고발해주고있다. 인간의 참다운 권리를 최상의 경지에서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공화국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

도는 이미 그 우월성과 공고성, 불패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오늘 보다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전광석화의 눈부신 우주속도로 내달리고있다.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공화국의 일심단결은 고마운 제도를 목숨바쳐 지키려는 공화국 천만군민의 신념의 결정체로서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는것이다.

이미전에 공화국은 남조선당국이 범죄적인 《북인권법》을 조작해내는 경우 그것을 자기 제도, 자기 인민에 대한 공식 선전포고, 전면대결의사로 간주하고 무자비하고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다.

반공화국 《북인권법》조작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지지, 협력한자들에게서는 반민족범죄행위가 담자로 인정하고 하늘땅을 뒤지고 땅속을 파헤쳐서라도 기어이 친벌을 가할것이라는것이 공화국의 확고한 의지이다.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해치고 북남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은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에는 시효가 있을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입에 칼을 물고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어 날뛰 저들의 더러운 명줄이 활화산처럼 터져오르는 공화국 천만군민의 분노에 의해 어떻게 비참하게 끊겨지는가를 오래지 않아 새겨보게 될것이다. 박영길

천백배의 징벌을 안길것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이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구실로 《국회》에서 끝끝내 《북인권법》을 조작해낸것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극도의 도발이고 전면체제대결선언이다.

그 무슨 《북인권법》이라는것은 《인권》의

간판 밑에 저들의 너절한 체제대결야망과 대결소동을 합법화하여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의 나락으로 몰아넣으려는 보수패당의 비렬한 흥심이 비껴있는 《체제대결법》, 《전쟁법》이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인권의자 곧 국권이다. 공

화국의 천만군민은 《인권》을 구실로 감행되는 동족대결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무자비한 천백배의 징벌을 안길것이다.

《북인권법》조작망동은 보수패당의 파멸을 알리는 전주곡이다. 조선인민군 군관 심재철

제 집안일이나 돌보아야

《북인권법》이라니? 까무라칠 소리이다. 주막집 강도가 선한 사람에게 행실을 가르치려 드는 격이랄까. 2년전 전세계를 경악시켰던 《세월》호대참사는 바로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악정과 반인권적만행이 빚어낸 가장 비극적산물이었다.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

와 자유마저 빼앗겨 생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쓰고있는데가 바로 남조선이다. 《현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 여기에 집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오포세대》, 또 여기에 희망과 꿈마저 포기한 《칠포세대》, 《삼포세대》가 거

리를 메우고있는 곳, 그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그런데 그 누구의 《인권법》이라니 소가 웃다 꾸레미가 터질 일이다. 남조선의 역적패당은 그 추악한 몰골로 동족을 포함하려 들기 전에 제 집안일이나 돌보는것이 좋을것이다. 평양시 중구역 류성동 주민규

스스로 제 무덤을 판다

지난 2일 남조선에서 각계의 거세찬 반발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테로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현 집권자를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은 그 누구의 《테로위협》을 논하며 《테로위협》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테로방지법》을 《국회》본회의에 넘겼다.

그때로부터 《테로방지법》은 그것을 반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의해 지금까지 지연되어오다가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이른바 《테로방지법》이라는것은 《테로방지》의 미명하에 《대테로연계 집안일이나 돌보는것》이 좋을것이다. 평양시 중구역 류성동 주민규

적 등 전례없이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고 한다. 하다면 현 집권자를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은 왜 《테로방지법》 채택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저들의 대결책동으로 파국상태에 처한 현 정세를 악용하여 《중북》, 《테로위협》소동을 일으킴으로써 반대파세력을 늘려놓고 보수세력을 끌어당겨 다가오는 《총선》에서 제 명줄을 연기해보려는 불순한 속심이 깔려있다.

현 집권자의 극악한 동족대결책동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완전파산지경에 처하였으며 이전 독재 《정권》을 썩썩해 현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현재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적 등 전례없이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고 한다. 하다면 현 집권자를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은 왜 《테로방지법》 채택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저들의 대결책동으로 파국상태에 처한 현 정세를 악용하여 《중북》, 《테로위협》소동을 일으킴으로써 반대파세력을 늘려놓고 보수세력을 끌어당겨 다가오는 《총선》에서 제 명줄을 연기해보려는 불순한 속심이 깔려있다.

현 집권자의 극악한 동족대결책동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완전파산지경에 처하였으며 이전 독재 《정권》을 썩썩해 현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현재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동족을 절고드는 상투적인 수법대로 현 집권자는 있지도 않는 그 무슨 《테로》가 눈앞에 박두한듯이 여론을 조성하면서 악청을 내지르고 책상까지 치면서 《테로방지법》의 처리를 압박해나섰다.

현 집권자의 독단과 전횡으로 《테로방지법》이 강행통과됨으로써 남조선은 《유신》독재시기를 통가하는 독재와 파쇼의 란무장으로 되게 되었다.

일명 《테로방지법》은 본질상 동족을 절고고안해낸 시커먼 파쇼악법으로서 정보원에 막대한 권한을 주어 도청, 감청, 감시 등을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한 반인권악법이다.

《테로방지법》이 채택되어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반 《정부》세력을 비롯한 진보민주세력들에 대한 탄압을 《테로적결》의 명분으로 합법화할수 있게 되었다.

남조선의 정보원이 지난 시기에 비법적으로 진보세력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적수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도청, 해킹을 해온것은 비밀이 아니다. 2012년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지난해에 있는 남조선의 정보원이 보수법적인 반인권행위도 서슴지 않는 모략단체임을 웅변해주고있다.

현 집권자가 이러한 정

보원의 반인권행위들을 합법화한것은 예비인 《유신》독재자와 같이 정보원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제2의 유신암흑기》를 몰아와 집권말기를 지탱하고 보수집권세력의 장기집권발판을 닦아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때문에 야당을 비롯한 반대세력들은 《테로방지법》을 《제2의 보안법》,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려는 행위》로 규탄하고있으며 남조선 각계 《테로정보원》출현이 현실화되었다고 항의를 표시하고있다.

《보안법》을 통가하는 극악한 파쇼악법인 《테로방지법》으로 하여 진보민주세력은 《중북》모자 이어 《테로》의 감투까지 덧쓰고 걸음걸음 류레없는 탄압과 박해속에서 리념과 활동의 자유를 송두리채 박탈당하지 않았으며 안되게 되었다.

남조선인민들의 참을성에도 한도가 있는 법이다. 《테로방지법》에 매달려 진보세력들에 대한 탄압행위와 반인권행위를 로골화할수록 남조선을 인권불모지로 만든 현 집권자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차질것이다.

그 어떤 파쇼적인 악법조작도 멸망의 나락에서 허덕이는 독재자의 운명을 구원해줄수 없으며 《테로방지법》조작은 박근혜 《정권》의 파멸을 더욱 앞당겨줄뿐이다.

본사기자 황진욱